

부장관사들에게 갖고다니며 발부를 증용한것은 사법권독립을 유린하는 중대한 사태라고 지적했다.

대한변협은 또 釜山の 세 변호사를 불법으로 일시 체포갑금한 관계자전원을 의법 조치할것을 요구했다.

대한변협은 이 성명에서 『2·7추도회』는 공권력의 횡포에의해 숨진 朴鍾哲군에게 애도의 뜻을 표시하는 정당하고도 평화적인 집회』라

동 87. 2. 12

결혼女職員 퇴직강요

「大韓投信」 지방發令등 압력

「女性의전화」서 항의 캠페인

여성문제상담기관 「여성의전화」 회원들은 10일 낮 1시 반경부터 5시간동안 서울永登浦구汝矣島동 대한투자신탁본점과 中구小公동지점앞에서 이회사 여직원및 행인

들에게 「(주)대한투자신탁의 결혼 퇴직강요는 철회돼야한다」는내용의 전단 1천여장을 나눠주었다. 이 전단에 따르면 10년째 이회사에 근무해온 朱小女씨

(31여)는 지난해 1월 결혼하면서 상사들로부터 「당장 사표를 써라」 「동거생활을하지 결혼은 왜했느냐」는 등의 폭언을 들었고 지난해 5월에 임신하자 大田지점으로 발령 받았다는것. 전단에 따르면 朱씨는 또